

##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시편 46편은 히스기야왕 때 앗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전멸당한 직후 악인의 포악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한 탄원시에 이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여진 시이다. 성도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실현이다. 몇가지 징조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감하기 전 성도는 감사로 시작한다. 어떤 이는 공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들이 기뻐 감사하는 이유를 묻는다.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의 구현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대답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은,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려는 자비 때문이요, 때를 결코 넘기시지 않는 것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실 수 없는 신실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경한 때의 심판의 행사는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 심판은 경의의 판단이기 때문에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상응한 보응이 있을 뿐 어느 한 편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는 전적인 승복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행사이기 때문에 자연도 인생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전하시고 창조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님이신고로, 하나님이 무능하여 심판을 포기했다느니 수행치 못한다느니 망언을 남발한 악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흑자를 세우기도 하고, 흑자를 제하기도 하시는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야말로 성도에게 찬양거리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능력 없는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수들의 조롱에서 건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를 드리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를 잊을 때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미소를 경험하는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 인색한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무한한 은혜에 대하여는 또한 한없는 감사가 있어야 마땅하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구원의 도화선으로써 믿음은 감사의 배가를 약속한다.

하나님을 향해 불손한 자들 즉 오만한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은 심판을 포기하시는 무능자요, 소임을 감당 못하는 나약자라고 떠들며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에게 오만불손한 행동과 신성모독의 망언을 토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피조물인 인간은 모름지기 창조주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경배해야 마땅하겠거늘 감히 교만의 뿔을 휘두르며 도전을 한다는 것은 자멸을 재촉하는 경거망동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절대로 힘과 자기 위엄의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경고한다. 인간의 높아짐이 자기 자신의 조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만 확정되는 일 이거늘 짐짓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결국 땅바닥에 내던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을 찌꺼기까지 깡그리 마셔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행악자에게 공정한 보응임에 틀림없으나 동시에 가공할 고통임에 또한 틀림이 없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 어느 곳으로부터도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그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신다. 공의의 심판이 해 뜨는 곳이나 지는 곳, 산이나 광야로부터 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꼭 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몽상하나 그는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시며 모든 원수들에게 비틀거리게 만들 복수의 잔을 들고 오고 계시는 중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며 언제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얼마나 복된지고…. 변화무쌍한 세대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자의 생애여!

-한국장로신문 [제 1648호] 2019년 7월 6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Pastor Billa Pani]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Senior Deaconess Ae Soon J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Proverbs 2:1-22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A Path to Wisdom Driven Life” ..... Pastor Billa Pani
* Hymn .....	488 ..... Congregation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li> <li>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li> <li>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li> </ul>	서울교회 QR코드 
--------------------------------	---	---------------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교사</b> 전광해(사야사),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백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현(미카스 카르), 김용진(황경태(말라위), 김영호(서형평(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캐나다),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몬 프로스도, 수레시, 수바쓰, 이영엽, 알로롱, 비사누(보도, 보디스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박명성(총회),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사교)	

	<p>천국시편 앙성·판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대한예수교 장로회</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h1 style="font-size: 2em;">서울교회</h1>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width: 45%;">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div> <div style="width: 45%; text-align: right;"> <p>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p> </div> </div>
--	---

## “ 감사하는 자가 되라 ”

■ 시 136:1~2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은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 다.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는 삶 을 사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 내게 됩니다. 신명기 16장 9절~17절에는 맥추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 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첫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또한 유 일절을 지나 49일째 되는 날은 '칠칠절'로 지켰습니다. 이는 첫 열매를 수확했다 하여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17절에는 3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10절)  
 ②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12절)  
 ③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자신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되, 삶이 넉넉한 사람은 귀한 물질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같은 작은 것으로도 드렸으며, 극빈한 사람은 밀가루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1. 감사의 주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음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는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낮아서 자신이 영적으로 확실하 게 서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무엇이 매를 맞으며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므로 죽을 뻔 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건강의 약화와 바다의 위험과 들짐승의 위험과 핍박과 죽음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깊은 심령 속에서 우리 나왔습니다. 라이블드 리버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의 커다란 덕을 보면서 살고 있으므로 감사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9:15)고 말 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 감사의 이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역사 때 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살려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직분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 은 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 절대적인 은총 가운데 영원하신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감격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맺는 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심으로 믿을 으로 살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합니다. 비록 겨져보다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 성을 듣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절단과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문을 잠가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단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을 것입니 다. 맥추감사주일의 맞아 감사의 주제와 감사의 이유를 바로 알아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 합니다.

지난 주 안주환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차도훈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30:1-2... 인 도 자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 찬 송 Hymn .....3(2)..... 다 함 께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함 께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8(시 31)... 다 함 께
-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함 께
- 기 도 Prayer ..... 말 은 이
- 찬 송 Hymn .....435(492)... 다 함 께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왕하 4:1-7... 인 도 자
-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함 께
- 봉 헌 Offering ..... 다 함 께
-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 찬 양 Anthem ..... 찬 양 대
-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함 께
- 설 교 Sermon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안주훈 목사
- \* 찬 송 Hymn .....214(349)... 다 함 께
-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함 께

- 목 도 ..... 다 함 께
- 성 시 ..... 시 125:1-2 ..... 인 도 자
- 찬 송 ..... 369(487) ..... 다 함 께
- 기 도 ..... 김종철 집사
- 성 경 ..... 막 6:7-13 ..... 인 도 자
- 찬 양 ..... 찬 양 대
- 설 교 ... “전파하고 쫓아내며 고치라(2)” ... 설 교 자
- 선교보고 ..... 좌남혜 선교사
- 농어촌전도대 발대식 ..... 말 은 이
- \* 찬 송 ..... 505(268) ..... 다 함 께
- \* 축 도 ..... 이종윤 목사
- \* 주기도송 .....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 기 도 ..... 남영주 권사
- 성 경 ..... 삼하 3:22-39 ..... 인 도 자
- 찬 양 ..... 찬 양 대
- 설 교 ...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라도”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이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지난주 성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시 136:1)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부								
수요 I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 표는 최종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 은 통일찬송가입니다.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 회 소 식

- ◆ 모 임
  - 리브가 전도회 7월 월례회 / 14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minster홀)
  - 한나 전도회 7월 월례회 / 14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minster홀)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고성의로 선교로 인해 상담이 없습니다.  
다음주 상담은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주훈 목사(서울장신대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종교인처분 선포 행정행위 공시]

지난 7월 10일 개회된 정기당회 결의에 따라, 후보삽지로 놓어진 가정속 등 5,560명에 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9조,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14조 제1항에 의한 실종교인처분을 선포하고 이를 공시합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강대성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946명	232명	203명	1,381명	13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7/7)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7일	헌 금	62,621,300	
	예 수 금		5,802,150
	교회학교운영비		3,969,000
	특별예배비		77,440
	성 레 비		50,000
	전 도 비		1,337,590
	선 교 비		5,000,000
	행 사 비		91,810
	구제비		1,300,000
	출 판 비		1,450,000
	복리후생비		64,000
	통 신 비		750,150
	차량유지비		655,865
	소모품비		480,000
	환경유지비		178,000
	수선유지비		347,100
	식당운영비		1,838,620
	합 계	62,621,300	23,391,725

## 2019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강 사
유년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I am a Christian (신 6:18-19)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25(목)-27(토)	아가페타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23:3)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8/15(목)-17(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영어 예배부	7/20(토)	베델하우스	One Body of Christ (1 Cor 7:18-27)	김의창 목사
에바다부	8/15(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시 121:1-2)	서명철 목사